

건강칼럼

‘Heart break hill’ 심장파열의 언덕인가? 상심(傷心)의 언덕인가?

같은 단어이지만 알고 보면 뜻이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요즈음 언론에서나 방송에서 영어, 외래어가 난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쉽고 적절한 우리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아는 체, 있는 체를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텔레비전 자막이나 대화 중에 굳이 영어를 사용하려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지하에 계신 세종대왕이 이를 아신다면 뭐라 하실까요? 제대로 알고 사용했으면, 가능하면 우리말을 사용했으면 해서 하는 말이다.

1936년 미국의 40회 보스턴 마라톤대회(1897년부터 개최)에서의 일이다. 그 당시 강력한 우승후보로는 장년도 우승자인 ‘존 켈리’라는 선수가 있었다.

아메리칸 인디언인 엘리슨 브라운이라는 선수가 초반부터 치고나가는 속도를 높일 때 대부분의 선수



이 윤 희

파워스포츠과학연구소 대표

들이나 관계자들은 그가 끝까지 완주하리라는 예상을 하지 않았다.

드디어 중반을 넘어 27~28km쯤부터 브라운의 속도가 느려지고 이윽고 켈리가 브라운을 따라잡아 추월하면서 격려하는 듯이 어깨를 치고나갔다.

하지만 이때부터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브라운이 다시 원기를 되찾아 속도를 높여 켈리를 따라잡고 결국 32km 지점쯤에서 완만하게 올라가

는 언덕(약 2km정도)에서 브라운이 켈리를 다시 추월하였다.

브라운은 우승(02:33:40)을 하였고 켈리는 5위(02:38:49)에 그치고 말았다. 브라운은 39년에도 우승(02:28:51)을 하였다.

이 과정을 취재한 보스턴글로브의 제리 네이슨(Jerry nason)이라는 기자가 기사를 작성하면서 그 언덕을 “상심(傷心)의 언덕: breaking kelly's heart: 켈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이라 썼고, 그 이후 이 부근을 “상심의 언덕

”이라 불리게 되었다.

우리나라에 소개될 때 위와 같은 사연을 잘 모르는 채 단어의 뜻에 충실하게 ‘심장파열의 언덕’(Heart break hill :경기후반부이고 언덕으로 올라가니 심장 박동이 더 올라가 터질 듯한 느낌을 유추해서 표현한 것으로 미루어 짐작됨)으로 잘못 알려지게 되었다.

필자도 2002년 106회 보스턴 대회에 참가하여 이 언덕(30m의 상승고도)을 달려 올라가면서 (사전에 위의 내용을 알고 있었기에)그 당시 켈리와 브라운의 불꽃 튀는 장면이 실제처럼 머릿속에 연상되면서 힘 들어지는 느낌을 받긴 했지만, 비교적 수월하게 올라간 것으로 기억된다.

더구나 달리는 도중에 존 켈리 용이 의전을 무개차량을 타고 가면서 선수들을 격려하는데 연도의 수많은 시민들이 ‘존 켈리, 존 켈리’ 하면서 환호성을 질렀고, 직접 볼 수 있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으로 간직하고 있다.

독자제언

안전한 겨울, 차량관리부터

어느덧 겨울이 성큼 다가오고, 한 해가 마무리 되어가고있다. 갑작스러운 추위는 차량이 정상작동되지 않는 문제부터 운행 중 시동이 꺼지는 증상까지 교통안전에 위협한 상황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추운 날씨에는 히터와 열선시트 등 자동차 온열장치의 사용량이 급증하게 되면서 자동차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차량점검은 교통사고 예방의 기본이자, 필수이다.

다음의 사항을 꼭 점검하여 사고 없는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보도록 하자.

▲배터리를 점검하자
블랙박스 및 온열기기 등의 사용으로 배터리의 사용량이 평소보다 월등히 높아졌을 것이다. 수시로 배터리 전량을 확인하여 적절한 시기에 교체 해주어야 한다.

▲타이어 마모도 체크하기

타이어는 차량 이용자의 안전과 직결된 부분이다. 마모한계선에 이르렀다면 망설임 없이 교체 해주어야 한다.

겨울철 스노우타이어 및 4계절용 타이어를 장착한다면 사고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부동액을 점검하자.

차량 점검 시 가장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부동액이다. 하지만 부동액은 차량의 엔진오일만큼 중요하다.

겨울철은 기온이 매우 낮아지기 때문에 부동액과 물이 혼합된 경우 부동액의 비율을 높게 해야 낮은 기온에 부동액이 얼지 않는다.

겨울철에는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철저한 차량관리를 통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자.

최해진 고형경찰서 경무계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멕시코 새 대통령 취임



멕시코의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신임 대통령이 지난 1일(현지시간) 멕시코 시티의 조칼로에서 거행된 전통 원주민축제 형식의 취임식에서 지휘봉을 들어보고 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설

동부권 발전 프로젝트에 힘 실어야

동부권 발전 프로젝트에 힘을 실어야겠다. 전북도는 예전에 여러 번 선언한 게 있다. 동부권 발전 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한 것이 그것이다.

전북도는 말 그대로 그 성취를 위해서 힘내야 한다. 이번에 또다시 동부권에 대한 발전 관심이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예전처럼 한 때의 흥선 날리기 같은 것이어서는 안된다.

전북도는 동부권의 발전 관심사를 말한 게 아니다. 이제 구체적 실행에 옮겨야 한다.그게 없다면 동부권 주민들의 인구 유출은 배가 될 터이다.

전북도는 동부권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지난 십수 년 간 동부권에 대한 발전 관심사를 말했지만 그게 그 뿐이었다. 그러므로 이제 동부권 발전 분위기를 구체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저그리고 그동안 발전 기대감을 키운만큼 추진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 말할 것이 있는데 주민들은 무슨 사업이고 연속성을 바라보고 있다. 그 어떤 새로운 일을 벌이는 것도 좋지만 기존의 발전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성과를 내주었

으면 하는 것이다. 정부의 일하는 방식이 이쪽의 기대와 달라 지역 발전이 희망 사항에 그칠까 염려가 된다.

이럴 때 전북도는 지력을 보여야 한다.

그 지력이 없다면 그동안 있었던 전북 자존 선언이나 제류 찾기 선언은 그저 찻잔 속의 태풍에 지나지 않는다.

전북도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자존을 공표하고 제류 찾기를 선언했지만 우리 지역의 현실은 어려운 것 투성이다.

희망하는 바와 반비례하여 낙후가 심화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전북도는 2백만 도민 운운하고 있지만 그것은 셀프 자존심일 뿐이다. 사실은 184만 명 수준에 머물고 있으니 말이다.

나이든 기성 세대들은 옛날을 회고하고 있다.

지난 1960년대 중반에는 거주 인구가 265만을 헤아렸다.

사정이 이러니 낙후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간 균등한 발전은 반드시 실현해야 할 이상이다.

전북도는 동서 철도 건설 건을 포함해 다른 발전 프로젝트에도 많은 힘을 실어주기 바란다.

고용률 전국 최하위에서 벗어나야 할 때

도내 고용률이 여전히 전국 꼴찌 수준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이마를 짚어야겠다. 경제신호등이 빨간불인데다 청년 실업률이 심각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고용률 최하위라는 성적표가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는데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부끄러운 기록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지 난감한 나날이다. 정말이지 청년고용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여전히 도내 고용동향을 보면 답답할 뿐이다. 이래서는 곤란하다. 전북도는 먼저 출신수별하는 자세로 지역 인재 고용의 사례를 많이 보여줘야겠다. 전북 지역의 청년 고용 열기가 아직도 미지근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외환위기 이후 청년실업률이 가장 높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감각이 둔한 탓이지 싶다. 청년 취업률이 미미한데도 어떻게 끌어 올려 보려는 움직임이 없으니 무슨 이유로 그러는지 알 수가 없다.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는 고용 열기를 더 달구어야 했다. 물론 도내 모든 공공기관들도 지역인재 고용에 적극 동참해

야 한다.

전북도와 공공기관들은 현실을 보아야 한다. 많은 젊은이들이 아직도 미취업자로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일자리가 예전보다 못한 데다 오히려 줄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다. 고용 현실이 전국에서도 밑바닥 수준이라는 지적이 괜한 것이 아니다. 전북도와 각 지자체는 청년 실업의 현실을 총체적으로 보아야 한다. 청년 실업 내용을 들여다 보면 전북도가 파악한 그 이상으로 심각하다. 그렇기에 청년들은 때때마다 발표된 실업률 보도에 공감하지 않았을 것이다. 청년 고용은 한두 번 시도해 보고 그만 둘 게 아니다. 일자리 창출이며 고용 실적이 낮은데도 그러저러 관망은 것처럼 호도하려는 것은 모양이 안 좋다.

일자리 창출이며 청년 고용은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의 진정성이 관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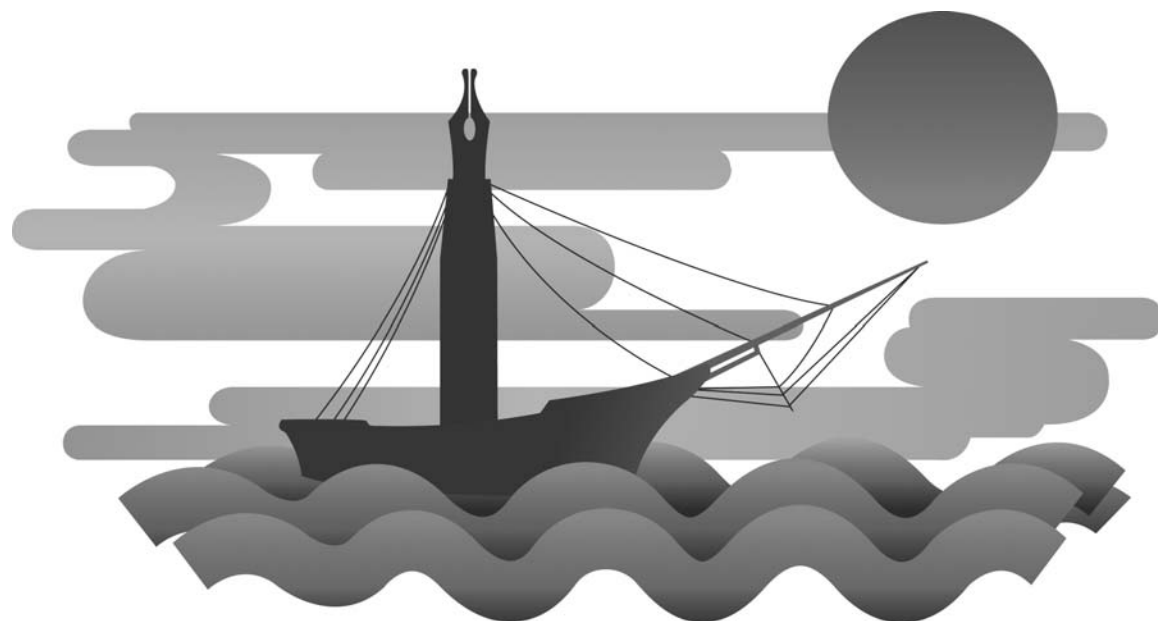
그리고 공공기업들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전북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수도권으로 거처를 옮기고 있는 세월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하는가. 전북도는 참담한 현실 앞에서 고민하지 않으면 안된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